

# 건축

한국불교  
불교건축 70년

# 1700년 속 70년 변화, 도심 사찰서 시작

한국사에서 '광복'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계기였다. 불교계 역시 종단, 단체, 수행, 복지,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양적 질적 많은 변화를 하게 된다. 전법의 장인 도량을 세우는 불사 역시 많은 변화를 하게 된다. 광복 후 70년 동안 불교건축(사찰건축)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알아본다.

### 이 땅에 절이 세워지고 1700년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온 지도 1700년이 되어간다. 불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는 373년(소수림왕 3)에 성문사(省門寺)가 세워졌다는 기록과 <삼국유사(三國遺事)>에 375년(소수림왕 5) 초문사(尙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세 곳의 절은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 땅에 절이 세워진 이래 지속적으로 많은 불사가 이어져왔다.

2011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이 땅의 사찰 수는 26,791곳이다. 조선총독부의 1943년 통계 자료가 수록된 <조선통계연감>에 따르면 해방 당시 이 땅의 사찰과 포교소 수는 1,466곳이다. 광복 후 사찰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후 이 땅의 불교건축은 우선 양적인 면에서 변화를 보인다.

### 700년을 견딘 위대한 건축

현존하며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이 땅의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308년(충렬왕 34) 예산에 세워진 수덕사의 대웅전(국보 제49호)이다. 하지만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과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지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봉정사의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은 1972년과 1916년 해체 보수 때 발견된 문서에서 각각 1363(공민왕 12)년의 중수 기록과 1376년(고려 우왕 2)의 중창 기록이 있어 두 불사의 건립 연대는 100~150년 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불교건축의 역사는 700~800년이다. 우리의 불교와 불교건축이 시작된 성문사와 초문사, 이불란사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었지만 수덕사 대웅전이나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이 남아 있는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현대건축물의 수명을 생각하면 다행을 넘어 선조들에게 머리를 숙일 일이다.

### 새로운 건축의 시작, 도심사찰

해방 이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소실됐다. 전쟁이 끝난 후 1960년~1970년대에는 도심 사찰의 복원불사가 이뤄졌다. 그리고 1970년~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교건축은 전기를 맞게 된다. 새로운 형태의 사찰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전히 전통적인 불사가 대세이기는 했지만 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사찰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새로운 형태의 사찰은 1970년~1980년대 생기기 시작한 도심사찰에서 시작된다.

1972년에 현대적 건축 양식을 도입해 혁신적인

불사라고 평가받은 한마음선원의 대한불교회관이 있었고, 1980년대 들어서 서울에 삼선포교원, 불광사, 구룡사, 능인선원 등 전통방식의 건축이 아닌 현대적 건축물의 도심 사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불교건축은 동국대 대각전,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등 1990년대로 이어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어졌는데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통적인 목조건축이 아닌 현대적인 건물의 사찰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안성 도피안사, 일산 여래사, 담양 정토사, 인제 만해마을, 부산 안국선원, 논산 관동사, 안양 비웅사, 공주 한국문화연수원(구 전통불교문화원), 서울 탄허기념박물관, 서울 국제선센터 등 전혀 새로운 형태의 건축불사가 이어졌다.

### 신 불교건축, 주변과의 조화로부터

1983년 3월 1일, 서울 동선동 주택가에 분황사 모전탑을 그대로 확대시킨(300평) 모양의 건축물이 등장했다. 불교건축사에 혁신적인 불사로 기록된 삼선

### 불교건축의 변화는 시대적 요청

분황사 모전탑 율림 삼선포교원 콘크리트벽의 도피안사 향적당 신행공간에 문화적 공간 더해

### 불교의 상징성 곳곳에 살아있고

전통·현대 공존하는 신건축 시도

포교원이다. 삼선포교원은 전통 벽돌 '전(傳)' 7만장을 쌓아올려 지었다. 건물 상부에는 신라 석탑을 올려놓아 전탑과 석탑의 합성 건물처럼 보인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 손정호 씨에 의하면 산사와는 달리 주택과 주택 사이에 도량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했다고 했다.

"건물의 외형이 석탑의 형태이고 그 안에 법당을 얹어야 하는 새로운 불사였습니다. 종교적인 상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형식의 불교건축은 주변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것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2006년 안양에 세워진 비웅사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지어졌다. 콘크리트와 목재를 함께 사용한 현대적 건축의 비웅사 역시 주변과의 상생, 조화를 고민한 불사로 평가 받고 있다.

### 1700년 재료의 변화 다양화

화색빛 콘크리트에 다홍빛 주연을 걸친, 건축잡지에서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건물이 산 중턱에 서있다. 2000년 안성에 세워진 도피안사의 향적당이다.

"보편적인 사찰건축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시대에 흔한 재료로, 이 시대에 적절한 절집을 짓



광복 이후 한국사회는 고도 성장하게 되었고, 현대화됐다. 사찰 건축 양식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돼 세워졌다. 사진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사찰들. 서울 삼선포교원(왼 위), 안양 한마음선원(우 번째 왼쪽),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두 번째 오른쪽), 탄허 기념박물관(세 번째 왼쪽), 목동 국제선센터(세 번째 오른쪽).

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절은 이 시대에 지어졌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절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건축가 이일훈 씨는 향적당을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었다. 설계를 의뢰했던 송암 스님도 "신라시대에 철근콘크리트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절을 지었을 것"이라며 불교건축물이 시대에 맞게 창의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축가 이일훈 씨에게 향적당 설계를 의뢰했다.

우리 불교건축은 석굴암 등 일부 법당과 석탑, 석 등 등 부속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목조건축물이었다. 1700년 가까이 이어온 건축의 재료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목조 일변도에서 구워낸 벽돌 등 전통을 활용한 재료와 석재와 콘크리트 철근 등 현대건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건축 재료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 법당도 '디자인' 이어야

앞서 말한 부석사 무량수전은 '위대한 건축'으로 불린다. 부석사 무량수전이 세워지고 700년이 지난 2000년 11월 그 명품의 계보를 잇는 또 하나의 명품이 탄생한다. 담양에 세워진 정토사 무량수전이다.

날아오를 것 같은 지붕의 추녀와 기대고 싶은 배흘림기둥은 없다. 하지만 외벽을 장식한 140개의 창호와 최소화된 직선의 배열이 배흘림기둥과 추녀를 대신한다. 설계를 맡은 김개천 교수는 "시각적인 요소들이 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시대인 만큼 법당 건축도 '디자인'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토사 무량수전이 단순히 '디자인'에서 끝나는 건축은 아니다. 법당 외벽 전체를 두르고 있는 140개의 창호를 동시에 열어젖히면 법당은 사라지고 산과 연못이 보인다. 실존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공과 색이 함께 하는 것이다. 설계자인 김 교수

는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으로 들어와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지고 함께 조응하게 된다"고 했다. 정토사 무량수전은 불교의 '공(空)' 사상을 건축으로 해석한 새로운 사찰건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로운 불교건축이 형식이나 재료 등에서 새로움을 시도했지만 1700년의 건축적인 전통과 불교의 종교적 상징성을 잊은 것은 아니다. 1997년 지어진 서울의 동국대 대각전이나, 2003년 인제 만해마을, 2009년 서울 상도선원과 공주의 한국문화연수원, 2010년 서울에 지어진 탄허기념박물관과 국제선센터 등 새롭게 시도된 신 건축 속에는 유구한 세월을 흘러온 전통과 불교의 종교적 상징성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종교적 공간에 문화적 공간을 더하다

2014년 천안에 세워진 황룡사는 북카페가 있다. 또한 현대식 건물과 전통적인 모습의 대웅전이 한 울타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현대식 건물에는 3미터에 달하는 긴 석재 처마가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통 기와의 처마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황룡사의 북카페는 문화친화적인 특별한 공간이다. 황룡사는 새로운 사찰건축 중에서도 또 다른 패러다임이다. 설계를 의뢰한 스님은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절, 종교에 얽매지 않는 절을 생각했다.

서울의 법원사는 1996년에 상설 미술관(불일미술관)을 지었고, 2000년 일산에 세워진 여래사는 뮤지컬 전용극장이 있으며, 2009년 서울에 세워진 상도선원의 갤러리는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밖에 2009년 공주의 한국문화연수원, 2010년 서울의 탄허기념박물관 등도 같은 맥락의 불사로 문화적인 공간이 더해진 현대적 건축물로서 외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의 모색이 반영된 새로운 건축이다.

### 변화는 시작됐다

"전통의 문화는 현대의 시간과 공간속에 결부되어 새로운 현대적 가치를 지닐 때 미래의 삶에도 의미와 효율을 지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건축가 김개천 교수는 앞으로의 우리 불교건축에 대해 말하면서 "시대적 기능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며 명분 없는 현대적 추구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건축은 종교적 상징성이 건축의 중심을 이룬다. 상징성의 표현은 의미를 담고 있는 형식이다. 의미를 담고 있는 형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불교건축이 지나온 세월에 비해 변화의 모색이 적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다. 하지만, 광복 이후 70, 80년대 경제성장으로 전국에 수많은 불사가 진행되면서 건축의 변화가 시작됐다. 1700년을 이어온 불교건축이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불교에겐 1700년의 역사가 있고, 700년 뒤 단단한 텍스트가 있다. 변화는 시작됐다. 위대한 텍스트 속에서 변화를 모색한다면 그 변화는 분명 새로운 700년, 새로운 1700년을 위한 위대한 전통, 위대한 건축이 될 것이다.

박도일 수필가 doi3012@daum.net

##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층착)

은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정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 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신성불상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 JJUN Heating System Module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 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공변차기법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의정부 : 010-5759-8804	용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